

카르마티트 단계에 대한 심오한 정의.

오늘 몸 없는 밥다다는 몸 없는 단계에 안정해 머무는 고귀한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몸이 없으며 카르마티트가 되려는 높은 목표를 가짐으로써 모든 브라민 영혼이 각자의 완성 단계에 거의 다가가고 있다. 오늘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각자가 카르마티트이며 몸 없는 단계에 얼마만큼이나 가까워졌는지, 또 아버지 브라마를 어느 정도로나 따랐으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 너희들 모두의 목표는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그분과 대등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등수대로 된다.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가 그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몸 없는 상태로 지내는, 즉, 카르마티트로 머물러 있는 구체적인 본보기를 보았다. 그러니 카르마티트가 되는 것의 특질은 무엇이나? 여전히 그 몸을 갖고 이 행위의 장에서 신체기관을 통해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동안 너희는 행위를 행하는 것을 단 1초도 멈출 수 없다. “카르마티트”란 행위를 행하는 동안 카르마의 굴레를 초월해 있다는 뜻이다. 굴레와 관계는 서로 별개다. 신체기관을 통해서 카르마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카르마의 굴레에 묶여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카르마의 굴레는 너희가 카르마의 제한된 결실에 의존하게 만든다. “의존”이라는 말은 너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남들에게 의존하는 자들은 유령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된다. 악령이 들어간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는 다른 누군가의 통제에 따라 그저 배회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본인의 행위에 조정 당한다면, 즉 카르마의 없어질 결실에 대한 욕망에 지배받는다면, 그 경우엔 그 카르마가 너희를 뭔가 굴레에 묶어서 너희의 지각이 계속 방황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자아에게, 또 남들에게까지 고통을 일으키는 카르마의 굴레라고 불린다. “카르마티트”라는 것은 카르마에 의존하지 않고 신체기관의 주인으로서, 즉 권위자로서 관계(연결) 속으로 들어가는 자, 일시적인 욕망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신체기관들이 행위를 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이다. 주인인 영혼이 행위(카르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영혼이 계속해서 기관들이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해라. 신체기관들이 너희를 끌어당길 때, 그건 너희가 스스로의 행위에 조정 당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의존된 상태로 굴레에 묶여 있다. “카르마티트”라는 것은 이를 초월해 있는 것, 즉 이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눈이 할 일은 보는 것이지만, 눈이 보는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누구냐? 눈은 행위를 행하지만, 그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영혼이다. 이처럼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이 행위를 행하는 신체기관들에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은 카르마의 굴레라고 불린다. 너희들이 행위가 행해질 수 있게끔 해주거나 행위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가 될 때, 그것을 카르마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카르마티트 영혼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굴레에 묶이지는 않는다. 때때로 너희는 “나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어”라고 한다. “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라고 말한다. 그런 영혼은 카르마의 굴레에 조정 당하는 영혼이라고 불린다. 그런 영혼을 카르마티트 단계에 가까이 있다고 하겠느냐, 멀리 있다고 하겠느냐?

“카르마티트”라는 것은 초월해 있다는 것, 즉 몸의 굴레나 육신의 관계들, 물질, 로직한 관계들이나 알로직한 굴레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육신의 관계들 또는 몸과 연관된 친척들과의 관계에 “관계”라는 말이 쓰이기는 하지만, 만일 몸이나 친척들에 대한 의존이 있다면 그 경우도 역시 굴레가 된다. “관계”라는 말은 너희에게 사랑스럽고 독특한 경험을 주는 말이다. 오늘날 영혼들 모두의 관계는 이미 굴레로 변했다. 관계가 굴레의 형태를 취하고 나면 그 굴레들은 계속 이런저런 방식으로 고통을 초래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슬픔이나 불행의 파도를 겪게 만들 것이다. 비록 일시적인 성취를 모두 다 가졌다 해도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 성취의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 행복과 더불어 그들은 1분 동안 성취의 화신이 된 경험을 하고, 그 다음 1분이 지나면 비록 모든 성취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부족한 단계를 경험할 것이다. 비록 충만하고 넘쳐흐르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텅 비어 있다고 느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계속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영혼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곳에는 절대로 충족감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의 마음, 몸, 또는 다른 모든 이가 한결같이 영원히 행복한 상태로 머물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식적인 바람에 반해서 스스로나 남들의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계속 기분이 상할 텐데, 왜냐하면 언짢다는 것은 너희가 이것의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신체기관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 권리를 가진 자라는 중요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들은 화가 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카르마티트인 자들은 카르마의 관계와 카르마의 굴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행위를 행하되 의존한 상태가 아닌,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진 자로 행해라. “카르마티트”는 본인의 과거 행위에 의한 카르마의 잔고라는 굴레가 하나도 없이 자유로운 이라는 뜻이다. 설령 과거 행위에 의한 카르마의 잔고에 따라 몸에 질병이 있거나 다른 영혼들과 너희들간에 산스카라의 갈등이 있다 해도, 카르마티트인 자는 카르마의 고통에 조정 당하지 않고 그 잔고가 청산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카르마 요기로서 카르마의 고통을 청산하는 것이 카르마티트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미소를 띠고 요가를 하며 카르마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가시로 바꾸고 그걸 불에 태워라, 즉, 카르마의 고통을 끝내라. 그것이 질병의 형태가 되게 놔두지 마라. 그것이 뭔가 질병의 형태가 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질병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나 입으로 그것에 관해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그것이 질병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할 것이고 남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런 영혼은 울부짖을 것인 반면 카르마티트인 자는 그것을 감당해낼 것이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고통을 갖고도 엄청 울부짖는 반면, 다른 이들은 크나큰 고통을 가지고도 그것을 감당해낸다. 카르마티트의 단계를 가진 자는 자기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카르마의 고통을 겪고 있어도 초연해지는 훈련을 할 것이다. 때때로 몸 없이 되는 단계에 대한 경험은 그가 질병을 초월하도록 해줄 것이다. 통증에 시달리는 자가 그 고통을 잊도록 과학의 편의시설로 의식이 없게 만들면 그가 몽롱해지는 그 약의 효과로 인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르마티트 단계에 있는 자는 초연해지는 연습을 해서 때때로 이 영적인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조그만 가시로 느낀다. 그는 또 아버지를 따름으로써 특히 순종적이 된 것의 눈에 보이는 결실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러난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 첫 번째는 몸이 없어지는 그들 스스로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순종적이 된 결과로 아버지에게서 받는 축복이 질병, 즉 카르마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가시로 변화시킨다. 고귀하며 카르마티트인 영혼은 카르마 요가의 단계로 카르마의 고통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느끼느냐? 그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작은 것을 크게 만들거나 큰 것을 작게 만드는 것은 너희 각자의 단계에 달렸다.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 또는 “일어난 일은 뭐든지 다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이런 믿음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각자의 카르마 잔고를 청산함으로써, 또 가끔씩 닥치는 시험을 드라마에 따라 실제로 치르는 것으로 인해 어떤 일들은 너희 앞에 좋은 형태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때는 어떤 좋은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의 형태를 띠고 올 것이다. 너희는 이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그랬던 건 좋지 않았다”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계속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그 형태로 올 것이지만, 손해라는 장막 뒤에는 유익이 가려져 있다. 겉에 드러난 커튼은 손해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일 너희가 잠시 인내심을 갖고 관용의 단계에서 모든 것을 내향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외적인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서도 그걸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성스러운 백조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저 백조들이 보석과 돌을 구분할 수 있으니, 성스러운 백조들은 숨겨진 유익을 찾아낼 것이다.

그들은 손실의 한가운데서 유익을 발견할 것이다. 알겠느냐? 너희는 금방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면 그 전에 너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다 변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행위를 볼 때 그 행위의 굴레에 사로잡히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나한테는 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게 바로 내 운이야.” 너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끈들을 서로 묶는다. 이런 생각은 끈이다. 이것이 너희가 카르마의 굴레에 묶이는 방식이다. 낭비적인 생각들은 카르마의 굴레의 미묘한 줄이다. 카르마티트 영혼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좋고, 나도 좋고, 아버지도 좋으며, 드라마 역시 좋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굴레를 끊는 가위처럼 작동된다. 일단 굴레가 끊어지면 너희는 카르마티트가 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시혜자 아버지의 자녀들이므로 합류시대의 매 1초 1초가 자애롭다. 매 1초 1초마다 너희가 할 일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너희의 봉사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브라민들의 직업은 세계 변화자, 세계 시혜자의 직업이다. 지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영혼들에게는 매 순간이 반드시 유익하다. 알겠느냐?

“카르마티트”라는 말에는 훨씬 더 큰 뜻이 담겨 있다. 카르마의 근본원리가 심오하듯이 카르마티트 단계에 대한 정의 역시 아주 엄청나며, 그래서 카르마티트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카르마티트가 되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와 같이 돌아갈 수 없다. 누가 아버지와 함께 돌아갈 것이냐? 대등해진 자들이다.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를 보았고 그가 어떻게 카르마티트의 단계를 달성했는지 보았다. 카르마티트가 되는 것에서 그를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이 돌아갈 자격이 갖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히 얘기했다. 지금은 이만큼만 점검해라, 그러면 바바가 나중에 더 들려줄 것이다. 앗차.

권리를 가진 단계에 안정해 머무는 자들 모두에게, 카르마의 굴레를 카르마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자들에게, 카르마의 고통을 카르마 요가 단계로 바꾸고 십자가를 가시로 변환시키는 자들에게, 매 1초 1초마다 유익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처럼 카르마티트 단계에 가까워진 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기억과 사랑과 나마스테.

아비야트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1) 너희는 강력한 아버지의 강력한 자녀들로 스스로를 한결같이 경험하느냐? 너희가 때로는 강력하고 다른 때는 나약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강력하다”는 것은 항상 승리한다는 뜻이다. 강력한 자들은 결코 패배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꿈에서조차도 패배 당할 수 없다. 너희가 꿈, 생각, 행위에서 늘 승리하는 것을 강력하다고 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강력하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때 승리하는 자들은 승리의 염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칭송되고 숭배받을 가치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일 오랜 기간 동안 승리하지 못한다면, 만일 강력하지 않다면, 그 경우 너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칭송되거나 숭배받을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항시 승리하는 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승리의 염주에서 칭송되고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이들인 반면, 그저 가끔씩만 승리할 뿐인 자들은 단지 때때로만 염주, 즉 1만 6천의 염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친 계좌가 있고, 또 “항상”의 계좌가 있다. 모든 사원에 1만 6천의 염주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일부 사원에만 그것이 있다.

2) 너희들 모두 너희가 이 무한한 드라마에서 주인공 배우 영혼이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느냐? 너희 모두 주인공 배역을 맡았다. 너희들이 주연배우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제로(Zero)인 아버지 한 분과 함께 배역들을 연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역시 제로, 즉 점들이다. 하지만 너희는 육신의 존재가 되고 아버지는 언제나 제로이다. 그래서 제로와 더불어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는 자들은 주인공 배우다. 이 의식을 가진다면 너희는

항상 정확하게 각자의 배역을 연기할 테고 너희의 주의를 자동적으로 그리로 이끌릴 것이다. 유한한 드라마에서 주연배우는 참으로 대단한 주의를 쏟는다. 너희 모두 전체 배역들 중에서 가장 큰 배역인 주인공의 배역을 맡았다. 항시 “와 나의 주인공 배역!”이라는 이 도취감과 행복을 유지해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거듭해서 “앙코르, 앙코르!”라고 외친다. 동시대 이후로 너희들을 기념하며 불리는 신봉의 노래들은 바로 지금 이때 너희들의 주인공 역할에 대한 기념물이다. 지금까지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이 만들어졌다. 너희 모두 주인공이 되었고, 이것이 심지어 지금까지도 너희에 대한 칭송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너희는 마지막 생에서도 너희에 대한 칭송을 듣고 있다. 고피 발라브에 대한 칭송과 또 고프들, 고프카들에 대한 칭송이 있다. 아버지에게 대한 찬양은 쉬바의 형태에 대한 찬양이며 자녀들에 대한 칭송은 삭티들의 형태에 대한 칭송이다. 이렇게 너희는 항상 주인공 배역을 연기하는 고귀한 영혼들이다. 이를 의식하며 계속 전진해라.

쿠마르들을 만나심:

1) 너희는 쉬운 요기 쿠마르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변함없는 요기 쿠마르, 카르마 요기 쿠마르인데, 왜냐하면 쿠마르들은 각자가 원하는 만큼 스스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하냐? 너희에게겐 굴레가 없고, 어떤 짐도 없으며, 아무 책임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볍다. 가볍기 때문에 너희는 원하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한결같은 요기이며 쉬운 요기들아, 이것은 높은 단계인데,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높은 단계를 가진 자들은 승리하는 쿠마르라고 불린다. 너희는 승리하느냐, 아니면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승리하느냐; 너희는 이런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승리하는 산스카라를 가졌다면, 그럴 경우 너희는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한 분의 사랑에 넋을 잃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2) 너희는 모든 행위에서 항상 기적을 행하는 쿠마르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 어떤 행위도 평범하지 않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해라. 너희가 아버지를 찬양해서 노래 부르고 또 그의 경이로움을 찬양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쿠마르들은 모든 행위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뜻이지,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런 자들이 아니다; 어느 방향에서 끌어당긴다고 그쪽으로 끌려가지는 않는다. 계속 굴러다니는 항아리처럼 때로는 너희가 어딘가에서 구르고 다른 때는 다른 어디에서 구르는 것은 아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불멸하는 한 분이 너희를 불멸하게 만들 것이니, 이런 식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경이로움을 행하고 쿠마르 각자가 어떻게 걷고 움직이는 천사인지를 시범으로 보여주며, 멀리 있어도 천사의 광채가 느껴지게 해라. 말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너희가 많이 만들었고 그것들을 반드시 실행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실제적인 증거를 원한다. 실제적인 증거야말로 모든 증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증거이다. 봉사가 쉽게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실제적인 증거가 있게 해라. 너희가 천사처럼 봉사할 때는 힘든 일이 더 적어지고 성공은 더 크게 달성할 것이다. 단지 말만으로 봉사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 말, 행위 세 가지 모두로 동시에 봉사해라,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앗차.

작별의 때에: 모든 곳의 열렬한 노력가들이며, 한결같이 더블 라이트하고 남들도 더블 라이트하게 만드는 변함없는 봉사자들 모두에게, 권리로써 성공을 달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며 남들 역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자들에게, 그렇게 항상 열성과 열의를 지속하는 고귀한 영혼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마음 깊은 데서 흘러 넘치는 사랑과 기억과 굿모닝.

축복: -발걸음마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수백만의 소득을 축적하는 억만장자가 되어라.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주 높은 단계에 머물러 있도록 주의를 준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할 시간이 없다. 이제 발걸음마다 주의함으로써, 수백만의 소득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어라. 너희가 “수백만 배로 행운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행동도 그와 같아야 한다. 수백만의 소득이 없는 발걸음은 단 하나도 내딛지 말아라.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고 나서 슈리마트에 따라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딛어라. 슈리마트에 너희 마음의 지시를 섞지 말아라.

슬로건: 너희의 명령에 따라 마음을 써라, 그러면 저절로 “만마나바브”의 단계를 가질 것이다.

*** 옴 산티 **OMSHANTI** ***